

에이치시티, 호서대학교와 CRO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체결...

바이오 산업 진출

- ▶ 반복독성과 흡입독성 GLP인증 획득으로 3년내 안전성평가 부문에 우위 점할 것
- ▶ 기존 사업과 더불어 비임상시험 CRO사업 진출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

<2022-04-22>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 대표이사 허봉재)가 벤처 선도대학 호서대학교와 비임상시험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를 주력으로 하는 합작법인(JV,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1일 호서대학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합작법인은 올해 상반기 내 설립해 반복독성 및 흡입독성 등 안전성평가 관련 분야 비임상시험 CRO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출자금액과 지분율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는 에이치시티와 호서대학교의 보유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합작법인의 성장을 극대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합작법인의 ▲기관 운영 ▲시설 및 장비 투자 ▲인재 영입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

에이치시티 관계자는 “합작법인이 반복독성과 흡입독성 등 안전성평가 분야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을 내년까지 획득해 국내 안전성평가 및 호흡기질환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서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환경부와 식약처, 농진청 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환경독성 분야 시험에 특화돼 있다.

학교 관계자는 “에이치시티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벤처창업과 산학협력 신모델을 발굴하고 정부지원 R&D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치시티 허봉재 대표는 “합작법인을 국제적인 안전성평가기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에이치시티 미국 지사 내 실험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에이치시티는 이번 MOU로 기존 시험인증 및 교정사업과 더불어 비임상시험 CRO사업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주)에이치시티 박현범 부장 (031-645-6308)

(주)IR큐더스 최윤영 선임 (070-5068-6320)